

교회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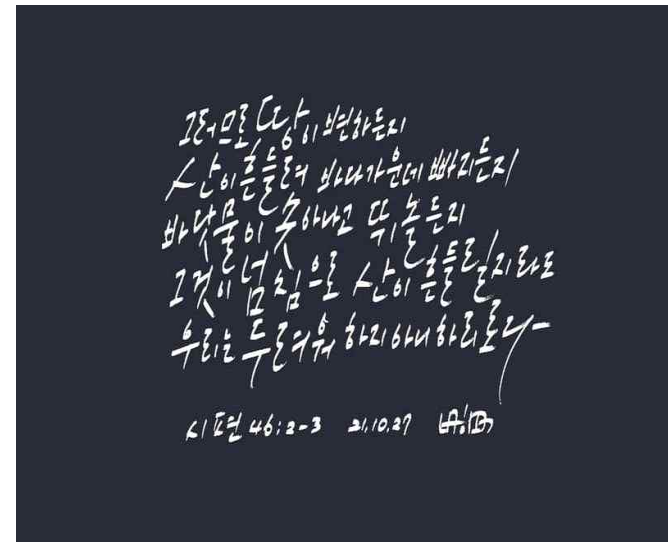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등록 카드와 중보기도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Zoom 접속은 ID:701 256 8865 PW: Jesus 혹은 042061
 생일: 김준혁(11/4), 장대현(11/9), 오경희(11/28)

2.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기쁨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3. E-transfer 현금 안내:
 NAME: Dartmouth Korean Church notify recipient by Email
 email: dartmouthkoreanchurch@gmail.com phone:9027463566
 Security Question: Our Savior Security answer: Jesus

지난 주 통계			
주일 현금	CD \$195	1,2,10,26,51	
감사 현금	CD \$20	1,2	
십일조	CD \$300	2,8	
장년 출석	7	어린이 출석	8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홈페이지: www.dartmouth-k-church.com

예배 안내: 주일예배 2:00PM 본당 수요기도회 8:00PM 본당

어린이교회 1:00PM 본당 청소년교회 9:00PM 토 (ZOOM)

담임목사: 김승용 902-746-3566, dartmouthkoreanchurch@gmail.com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여는기도	김승용목사
사도신경	다함께
찬 양	다함께
성경봉독	계 8:1-9:21 다함께
설 교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김승용목사
결단찬양	비 준비하시니 다함께
교회소식	김승용목사
헌 금	다함께
축 도	김승용목사

요한계시록 8:1-9:21

1 일곱째 인을 때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2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4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코자 함이라
5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6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가다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8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 버리고 수
9 목의 삼분의 일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10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11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지더라
12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빛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13 떨어지니
14 이 별 이름은 쓴 썩이라 물의 삼분의 일이 쓴 썩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
15더라
16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아 그 삼분
17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 삼분의 일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18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19있으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20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21 받았더라
22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
23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24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25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26 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해하라 하시더라
27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28 사람을 쓸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29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30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
31은 사람의 얼굴 같고
32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33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자와 많은 말들이 전령터로 달려 들어가는
34소리 같으며
35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쓰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36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37아블루온이더라
38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39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40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며
41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42 마병대의 수는 1)이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43 이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44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45 이 세 재앙 곧 자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
46하리라
47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48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49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50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목회자 칼럼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재앙은 무지성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심 판은 악에 대한 징벌이고 재해는 선악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고 재해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8장과 9장은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이어지는 7나팔의 심판을 다룹니다.

7나팔 심판의 시작은 금향로를 땅에 쏟는 것으로 시작되는 데 이는 6장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께 구한 기도가 응답됨을 뜻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때로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 가 아니라서 구한 것을 받지 못할 때가 있지만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 버린 것들조차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7나팔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회개하지 않은 이들을 향한 심판으로 이 심판의 목적은 이 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바로가 10재앙으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완악해진 것처럼 이들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은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 기다리시지만 그 기다림은 무한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7나팔은 1-4 나팔과 5-7 나팔로 구분되는 데 전자는 자연을 향한 심판이고 후자는 인간을 향 한 본격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후자의 3나팔이 본격적인 “화, 화, 화”인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 땅과 수목의 1/3을 태웁니다.

두 번째 나팔은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1/3이 피가 되고 바다생물의 1/3이 죽고 배가 1/3이 부숩니다.

세 번째 나팔은 썩이라는 큰 별이 떨어져 강과 물샘의 1/3이 쓴 썩이 되어 많은 이들이 죽습니 다. 네 번째 나팔은 해, 달, 별의 1/3이 어두워집니다.

1-4나팔은 자연이상으로 인한 하나님의 간접적인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람 들을 향한 직접적인 심판은 더 엄중한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화, 다섯번째 나팔은 황충으로 인해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두 번째 화, 여섯번째 나팔은 7장에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잡고 있던 천사들이 풀려나게 되고 이 천사들이 이끄는 마병 대가 정해진 날에 사람의 1/3을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마병대는 로마군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팔다이인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활에 능하여서 후퇴하면서도 등 뒤로 공격을 하는 (꼬리에 머리 가 있음) 마병대였습니다. 이처럼 나팔심판은 갈수록 주변에서 중심으로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준엄해집 니다.

첫 번째 화, 황충에게 공격당한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차라리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 못하고 고 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가끔 “죽지 못해 산다”는 자조 섞인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 유와 목적을 상실하고 그저 하루 하루를 연명하듯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황충이 하 늘을 뒤덮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절망과 낙심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전갈은 숲이나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사람을 공격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불췌 전갈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영접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뒤덮은 황충으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소망을 누리는 자 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갈처럼 우리를 숨어 공격하는 삶의 위험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선물과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시편 46편 1-3절에 이르시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흔들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7나팔 심판은 믿는 자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운 재앙 속에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 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다트머스한인교회 김승용 목사